FinBERT-FOMC 분석

높아진 연착륙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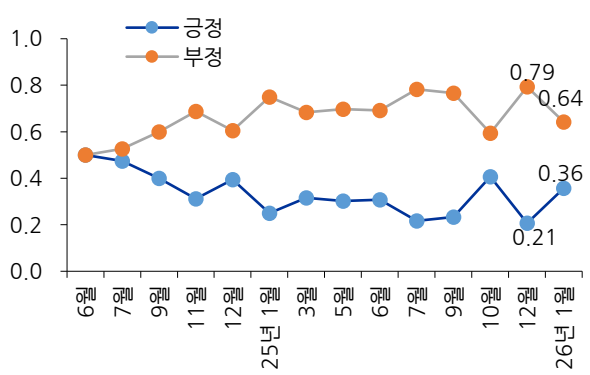
자산배분/AI 분석_방인성(Ph.D) 02)368-6145_ isbang@eugenefn.com

- 성장은 '견조한 속도(solid pace)'로 확장되며 긍정 심리 우위
- AI 투자 확대 기대감 강화로 성장에 대한 낙관론 확인
- 특히 AI 생산성 향상은 인플레 압력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해석
- 인플레에 대한 경계감은 다소 완화(에너지 가격과 주거비 안정)
- 고용 시장 우려는 여전하나 강도는 낮아짐. 연착륙 경로에 있음을 시사

1 월 FOMC 의사록에서 성장에 대한 긍정 비율은 67%→65%로 소폭 하락했지만, 미국 경제가 '견조한 속도(solid pace)'로 확장 중이라는 평가가 유지되며 전반적으로 낙관적 톤이 우세했다. 특히 12 월에 이어 AI 투자 확대 기대가 한층 강화되었고, 최근의 생산성 향상 추세가 단기 경기 순환을 넘어 구조적으로 성장을 지지할 것이라는 판단이 부각됐다. 생산성 개선은 성장 모멘텀을 키우는 동시에 인플레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착륙(soft landing)에 대한 자신감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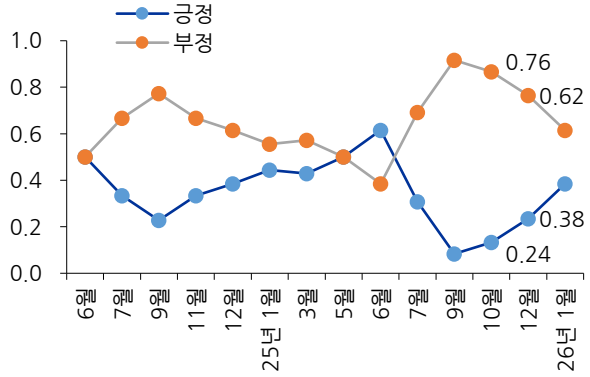
물가 측면에서는 긍정 심리가 12 월 21%에서 1 월 36%로 상승했다. 예상보다 낮은 물가 지표와 에너지 가격 하락이 인플레 압력 완화를 뒷받침한 가운데, 관세 영향으로 상품 물가가 일시 반등하더라도 주거비 상승 둔화가 지속되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고용은 부정 심리가 76%→62%로 큰 폭 완화되며 '여전히 우려는 남지만 강도는 낮아진' 모습이다. 실업률 4.4% 내외의 안정, 낮은 해고 수준, 이민 감소 등 공급 요인을 고용 둔화의 배경으로 해석한 점은 고용 시장이 붕괴가 아닌 연착륙 경로에 있음을 시사한다.

인플레 경계감 완화



자료: 유진투자증권

고용 시장 연착륙 가능



자료: 유진투자증권

성장에 대한 심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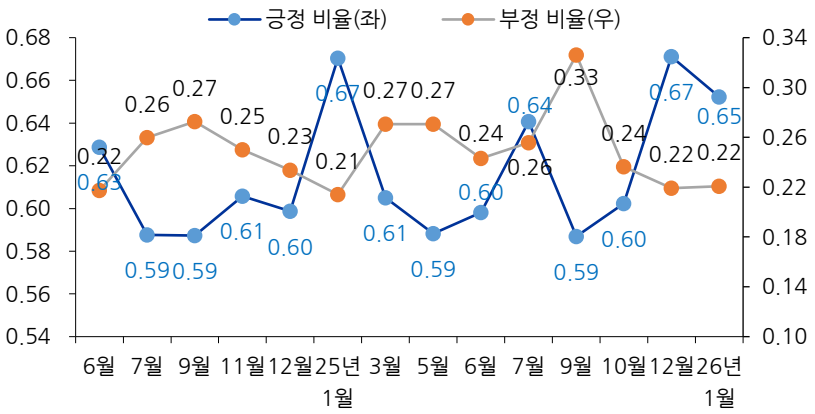
AI 투자와 생산성 효과

1 월 FOMC 의사록에서 **성장에 대한 긍정 비율은 이전 회의 대비 소폭 하락(67%에서 65%)하였으나 견조한 속도(solid pace)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긍정의 톤이 우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2 월 의사록에 이어서 AI 관련 투자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단기적인 경기 순환을 넘어 구조적 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확인된 것이다. 연준 위원들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의 급증과 최근 생산성 향상 추세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성의 향상은 성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 압력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핵심이다.

또한 향후 재정 정책과 규제 변화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하며 26 년 성장률 전망을 밝게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1 월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소비 회복력과 AI 주도 투자 확대로 인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없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심리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도표 1. **연준 위원들의 성장에 대한 견해**



자료: 유진투자증권
주: FinBERT-FOMC 모델로 추정한 결과

물가에 대한 심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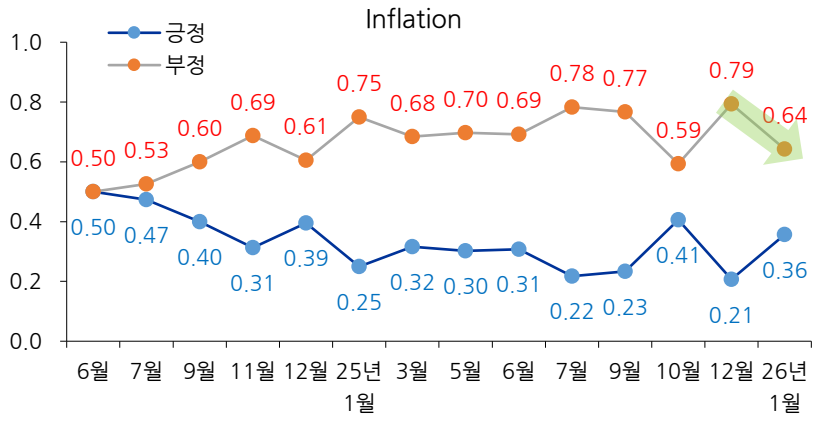
주거비 안정

1월 FOMC 회의록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긍정 심리는 12월 21%에서 36%로 상승**하였다. 예상보다 낮은 물가 지표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인플레 압력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연준 위원들은 상품 물가가 관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상승(도표.4 참조)했음에도 특히 주거비의 상승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주거비 안정은 향후 전체 인플레를 낮추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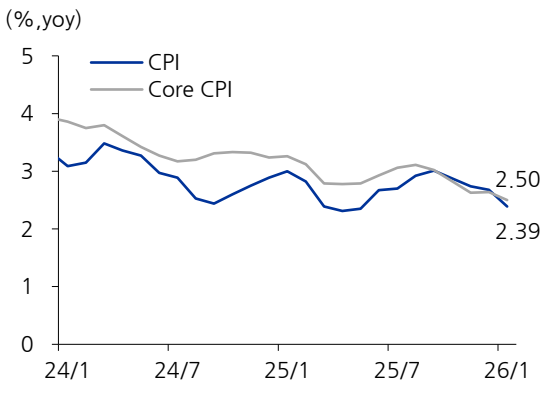
단순히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주거비 안정이라는 구조적 개선과 생산성 향상의 긍정적 요인이 더해지며 물가에 대한 낙관적 심리를 변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2. **인플레이션 부정 비율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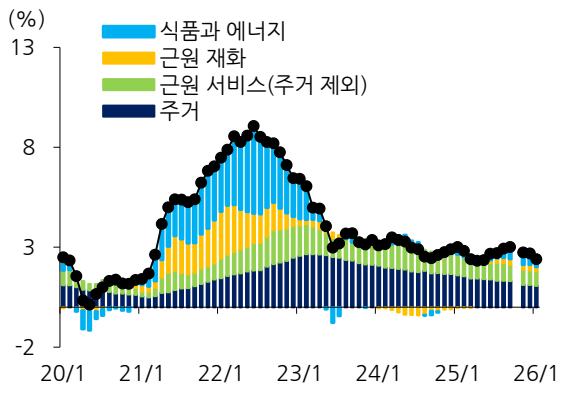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3. **1월 CPI는 +2.39%yoy로 하락**



자료: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도표 4. **여전히 끈적한 서비스 물가**



자료: FRBSF,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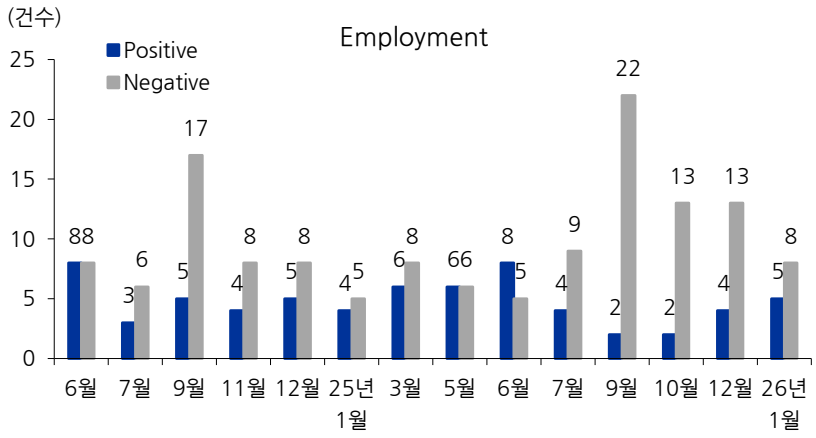
고용에 대한 심리 변화

불안감 완화

연준 위원들의 **고용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는 12 월 76%에서 1 월 62%로 큰 폭 감소하였다**.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하지만, 그 강도는 현저히 약해졌다. 이러한 심리 개선은 노동 시장의 붕괴 리스크가 완화되고 안정화 신호가 감지되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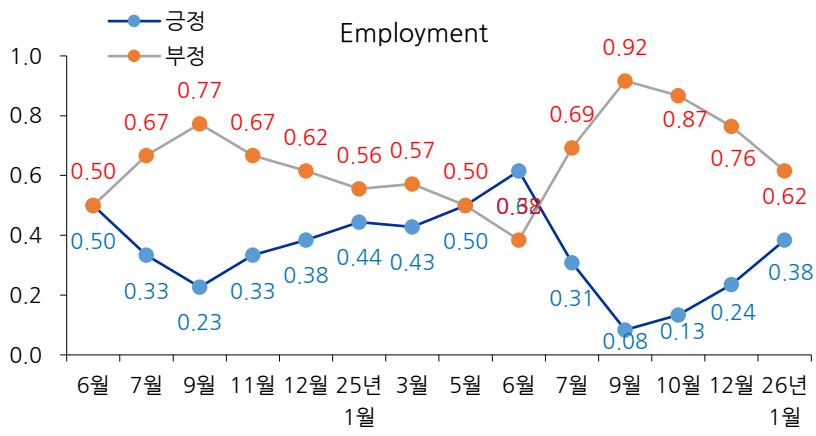
실업률이 4.4%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이 점진적 냉각기를 지나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해고(layoffs) 수준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고용 증가세 둔화를 이민 감소 같은 공급 요인에서 찾고 경기 침체 신호로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은 점은 고용 시장이 안정적인 연착륙 경로에 있음을 시사한다.

도표 5. **고용에 대한 FOMC 의사록 심리 분석**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6. **고용 시장 하방 리스크 감소**



자료: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8%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2%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5.12.31 기준)